8대 조계종 교육원 집행부에 거는 기대

논설위원 칼럼

김 상 영

중앙승가대 교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이 출범하였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9월19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진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진우 스님은 9월23일 교육국장에 원용 스님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제8대 교육원 집행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교계 구성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교육원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제8대 교육원 집행부의 출범을 역사적인 첫걸음이라 표현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의 교육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교육기관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 교육원은 별원으로 독립되었으며, 독립성이 보장된 이후 결코 적지 않은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승가교육 체계의 정비와 각 단계별 교육내용 변화는 큰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25년여 만에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고시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사미(니) 의제도 뚜렷하게 정착시켰다. 이른바 재교육 차원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원의 업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기관과 관련한 문제는 마치 목에 가시처럼 종단 구성원 모두의 걱정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임이 분명하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8대 교육원 집행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는 바로 기본교육기관의 조정 문제이다.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안 되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한 해 출가자 150여 명을 넘기기도 힘든 현실에서 조계종은 무려 17개에 달하는 기본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 교육기관에서 10명의 출가자를 수용하기도 힘든 현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종단교육 관계자 모두는 그저 한 해 한 해를 견디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이 발표되어왔다. 교육원 스스로도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정안, 혹은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안들은 그저 '안'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 여기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종단 출가자의 급감 추세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어엿한 종도로 양성하기 위한 의무교육기관은 전혀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단 관계자들의 '쉽지 않은 문제'라는 식의 답변은 이제 더 이상 변명으로 들리지도 않는 현실이다.

물론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는 교육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그리고 17개 교육기관 모두의 합의와 동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4개 사찰승가대학(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구본사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를 둘러싼 종도들의 인식은 분명 달라졌다. 이것은 논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교계 곳곳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여론'이기도 하다.

교육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은 "현재의 승가교육을 토대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그리고 양질의 교육제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다수가 공감하는 여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피력하였다. 다소 조심스럽고 피상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육원장스님은 현재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이 처해 있는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부디 제8대 교육원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기본교육기관 조정, 또는 기본교육기관 일원화라고 하는 종단의 숙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kimsea98@hanmail.net

무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법보 시론

박 사

북칼럼니스트

얼마 전 거리에서 전단지를 받았다. 서툰 디자인의 전단에는 낯선 종교 이름과 함께 앞뒤로 빼곡하게 "지도 말씀"과 계율이 적혀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 "탐내는 마음을 버리자, 인색한 마음을 버리자,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자…." 무척 소박한 계율이라 웃음이 나왔다. 부처나 예수의 말씀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말. 계율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느 종교나 대동소이하다.

계율이 없는 종교는 없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면, 계율의 문제는 다른 종교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저 이웃끼리 트러블 없이 잘 지내보자는 소박한 바람을 넘어선다. 조금만 파 보면 그 안에 부처가 깨달은 가르침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

텐진 빠모는 계를 지키는 삶을 일러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처럼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 무해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해악을 끼치지 않고 살면 우리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텐진 빠모의 마음공부' 94p) 깨달음과 상관없이 깨달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은 주변에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어떤 형태로든 위협받지 않는 주변의 생명체들은 평화의 일가를 이룬다. 그러나 계의 언어는 소박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다.

일묵 스님은 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알아차림'임을 지적한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거짓말은 아닌지, 내가 하는 행동이 돌고 돌아 다른 생명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알아차림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해도 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늠할 수 있다.

오계는 다섯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섯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바른 견해와 굳은 의지가 없는 이가 삶에서 그때그때 내리는 판단은 상황과 욕망에 따라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그 불균형을 변명하기 위해 말은 많아지고 거짓도 늘어가며 행위는 산만해진다. 당연히 계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말해, 계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삶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계를 제대로 지키려면 궁극적으로 팔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다.

물론 때와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교조적으로 계율에 집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계율을 지키지 않은 이를 비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부처는 늘 극단을 경계하라 했으니, 계율을 생각할 때도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넉넉함이 핑계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승묵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을 냉장고 문을 닫는 것에 비유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냉기가 스며나와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토록 빈틈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율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마음은 냉장고 문에 빈틈을 만든다. 계는 타인을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내 삶이 좀 더 충만하기 위해서. 꼭 종교인뿐이겠는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삶이 분리되지는 않았는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삶이 누덕누덕해지고 기우뚱거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 하다가는 어느 순간 남의 발등을, 남의 아픔을 밟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catwings@gmail.com

사 설

용맹·결사 깃든 야외 천막법당 거룩하다

천막출입 완벽히 차단한
청규는 규칙 아닌 철칙
은산철벽 속 무차 공간
9인 수행자 모두 주인공

조계종 '선원총람'에 존재하지 않는 선원이 선다.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도량'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상월선원(霜月禪院)이다. 이 선원이 들어설 곳은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이고, 문을 여는 때는 불기 2563년 동안거 결제가 시작되는 올해 11월 11일이다. 45일 남겨 둔 상황에서 '어떻게 선원을 짓는가?'라는 노파심은 걷어 두어도 좋다. 대들보, 창방, 서까래가 필요 없는 천막법당이다. 한 겨울의 서릿발 칼바람이 휘몰아칠 허허벌판에 조성될 천막 법당에 방부 들일 수행인은 현재까지 9명이다.

수행시간은 하루 14시간 이상이다. 공양은 하루 한 끼이고, 허용된 옷은 딱 한 벌이다. 묵언해야 하며 삭발·목욕도 일체 금지다. '이 청규를 어기면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까지 써야 입방이 허락된다.

선언적 규칙이 아니라 엄밀히 지켜야만 하는 철칙인 것이다. 하여, 이것은 용맹정진(勇猛精進)이다.

'가산불교대사전'의 도움을 받아 용맹정진에 담긴 깊은 뜻을 새겨보자. '정진이란 용맹을 특성으로 한다'고 했으니 '항상 용맹하게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그러니 용맹과 정진은 둘이 아니다. 또한 '보리를 향해 용맹하게 정진하여 빠르게 증득하고자 한다'고 했으니 최고 수위의 정진은 용맹정진이다. '니건자소설경'에서 용맹정진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왕자 사문 구담은 용맹정진하며 힘든 고행을 행하였다. 하루에 마 하나를 먹거나, 쌀 한 톨을 먹으며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고 6년 동안 고행하여 등정각을 이루었다." 9인의 수행인이 바라보는 지점도 '등정각'일 터다.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정진하는 것만이 침체된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동안거 한 철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한 바 있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갈파에 8명의 스님이 동감하며 상월선원 조성이 구체화됐다고 한다. 작금의 불교위상 추락 책임이 승가에 있음을 참회하는 메시지다. 세인들이 스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스님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옛 선지식의 일갈을 올곧이 받아들였음이다. 또한 법문(法門)의 흥망성쇠가 승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통찰이다. 하여, 이것은 결사(結社)다.

'봉암사 결사'를 연구한 서재영 박사는 결사를 이렇게 설파한 바 있다. '승가 본래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정신적 자각이 집단적 형태의 종교적 실천으로 표출된 것이 결사다. 불조혜명을 잇겠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수행을 통한 교단 혁신을 추구하는 승가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려 지눌선사의 정혜결사, 한말 경허 선사의 수선결사, 문경 봉암사 결사를 관통하는 건 '청정승가 구현'과 '교단 쇄신'이다. 상월선원 야외천막결사도 그 맥락과 맞닿아 있다. 승가위상이 불교위상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 결사의 귀함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상월선원 청규 중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누구도 해제 때까지 천막에서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방선 후의 포행도 천막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고, 앞은 철벽이 가로막혀 꼼짝달싹 못하는, 말 그대로의 은산철벽(銀山鐵壁)을 스스로 세우려 함이다. 추위와 배고픔도 견디기 어려울 지경인데 자신의 발까지 묶어버리는 것이다.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한국불교 중흥을 향한 염원이기도 하다.

강렬하면서도 거룩한 이 공간은 무차공간이다. 전 현직의 높고 낮음, 법랍의 무게는 이곳에 들어선 순간 화롯불에 눈 녹듯 한 찰나에 사라진다. 하여, 은산철벽 속에 좌복을 펼친 9인의 수행인은 모두 주인공이다.

사부대중의 시선은 벌써 천막법당이 들어설 벌판에 쏠리고 있다. 황벽 선사의 시처럼 뼛속 깊이 사무친 추위를 이겨낸 매화가 선사할 향기를 기다리고 있음이다.

1988년 5월 16일 창간 | 법보신문 | THE BEOPBO SHINMUN

발행인 김 형 규 편집인 이 재 형
광 고 노 훈 인 쇄 임 채 청

구독신청 : 02-725-7010
광고접수 : 02-725-7013

(우)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01호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구 독 료 : 월 5천원 / 1년 6만원

독자 여러분의 뉴스제보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 www.beopbo.com
대표메일 : webmaster@beopbo.com
FAX : 02-725-7017 02-725-7014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07229호

대한불교조계종 제6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화제의 신간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228쪽 | 값 14,000원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기도와 눈물로 써내려간 가슴 절절한 감동의 기록.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끝자락에서 쉼 없는 정진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역경을 극복한 불자들의 힐링 메시지.

제1회 신행수기 _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2회 신행수기 _ 가피
제3회 신행수기 _ 믿는 마음
제4회 신행수기 _ 꿈과 같고 이슬과 같으니
제5회 신행수기 _ 공덕

지혜의 향기로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모과나무
mogwabooks@hanmail.net | 02-725-7011